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인권침해”

지자체 3곳에 “피해 막을 관련서비스 제공하라”

복지부에 반복된 피해 중단할 관련 법 개정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이 65세를 넘기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현행 복지제도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정부에 이들 장애인들의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

해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5세 생일을 넘겼거나 곧 맞이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12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최

대 22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축소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자체 3곳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도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일상에서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에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뉴스



영암군 청정 금정면

경로당 위생점검 실시

식중독·신종코로나 확산 예방

영암군 금정면(면장 김규환)은 지난 11일 부터 부식비 지원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경로당 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금정면 부월경로당을 시작으로 등록경로당 46개를 대상으로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장고 조리식품,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등 경로당 주방 전체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경로당 위생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김규환 금정면장은 “부식비 지원에 따른 철저한 위생관리로 경로당 급식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식사 제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침 예방,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정면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에 마스크 지급, 손소독제 비치, 살균제 전달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홀로 어르신 위한 안전망 구축

고독사 위험 대상자 1:1 결연 등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인한 사회적 고립 대상자를 조사하여 고독사 위험군 79명을 발굴했다.

군은 위험군에 있는 이들을 보살필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했다.

고독사 지킴이단은 마을 통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 등 7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

상자들과 1:1 결연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독거노인 보살핌과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며 “군에서는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를 상시 발굴·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월, 노인 및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1인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빈곤 및 질병, 가족 관계 단절로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군 나산면,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 발족

7개 기관 참여...적극 협력

함평군 나산면(면장 이경연)은 지난 11일 면사무소에서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 (이하 지원단)을 발족하고 지역 7개 기관과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예방·발굴하기 위한 이번 지원단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초등학교·파출소·우체국·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 등 나산면 소재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에 발맞춰 민관협력을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구축에 공감하고 위험가구 발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연 나산면장은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이 이번엔 새롭게 구성되면서 그동안 마을이장 등에만 국한돼 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망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약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잘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